

## 성주체성 문제 혹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성 개방성

### SELF ESTEEM AND SEXUAL LIBERALITY OF ADOLESCENT WITH GENDER IDENTITY PROBLEM OR HOMOSEXUAL TENDENCY

이영식\*† · 전창무\* · 김소연\* · 고복자\*\*

Young Sik Lee, M.D., Ph.D., \*† Chang Moo Jeon, M.D., Ph.D., \*  
So Youn Kim, M.D., \* Bock Ja Ko, M.D., Ph.D. \*\*

**연구목적** : 우리나라 청소년들에서 성주체성 혼란과 동성에 성향의 빈도를 우선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성주체성의 혼란이나 동성에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성개방성과 자아 존중감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법** : 서울지역 1,748명의 중, 고등학생(남자 중학생 359명, 여자 중학생 452명, 남자 고등학생 483명, 여자 고등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성주체성, 동성에 성향, 성개방성, 자아 존중감에 대하여 자기 보고식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 1) 남중생의 15%, 남고생의 16.7%, 여중생의 39.4%, 여고생의 40.5%에서 성주체성 문제의 가능성을 보였다. 경미한 성주체성 문제는 여학생에서 많았으나 성주체성장애가 우려되는 심각한 성주체성 혼란은 남자, 특히 남고생에서 많았다.

2) 성주체성 문제 유무에 따른 성개방성은 여중생에서 만이 성주체성 문제군에서 성개방성이 높았고( $p=0.044$ ), 자아존중감은 성주체성 문제군에서 낮았는데, 특히 남중생( $p=0.033$ ), 여고생( $p=0.020$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3) 남중생의 17.2%, 남고생의 5.4%, 여중생의 17.7%, 여고생의 12%에서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 심각한 동성애 성향은 여중생 3.3%, 남중생 3.1%, 여고생 2.1%, 남고생 1.7%순이었다.

4) 동성에 성향 유무에 따른 성개방성 차이는 없었고, 자아존중감은 여고생의 경우만 동성에 성향이 있는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39$ ) 낮았다.

5) 성주체성 문제가 있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01$ ) 동성에 성향이 많았다.

6) 성주체성은 연령간 차이가 없었으나 동성에 성향은 특히 남학생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다.

**결론** : 성주체성의 문제나 동성에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선별하여 적절한 정신과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중심 단어** : 성 주체성 · 성 오리엔테이션 · 자아 존중감 · 성 개방성.

## 서 론

개인의 성 발달(sexual development)에는 생물학적 요인, 주체성(sexual identity), 획득성 주체성(gender identity ;

사회 환경적 요인 이외에 종교, 윤리, 도덕 및 문화적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성에 대한 생각과 감정 및 태도를 갖게 된다. 개인의 성을 결정하는 데는 성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학교보건원 Seoul School Health Center, Seoul

†교신저자 : 이영식, 156-755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4-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전화 : (02) 6299-1518 · 전송 : (02) 825-8474 · E-mail : hawkeyelys@hanmail.net

이하 성주체성), 성적 지남력(sexual orientation)과 성 행위(sexual behavior) 4가지 요인이 관여하게 된다.

성역할(gender role)이 성주체성(gender identity)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 한다. 이 장애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에 대해 지속적인 부적절함과 불편을 느끼고 반대의 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 중 극단적으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를 DSM-III-R<sup>1)</sup>에서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라고 불렀으나 DSM-IV<sup>2)</sup>에서는 이 명칭을 없애고 성주체성장애의 범주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ICD-10<sup>3)</sup>에서는 성전환증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최근 성주체성 장애자들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반대 성으로 바꾸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방송 매체에서도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성주체성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있다. 이는 첫째는 성주체성 장애에 대한 불편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개인의 태도 변화, 둘째는 성전환증을 심리적 치료 가능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의학적 장애로 인정하는 의학계의 분위기, 셋째는 성전환수술 기술의 발달 등과 관련되어 있다<sup>4)</sup>.

성적 지남력이란 성 충동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성(heterosexual), 동성(homosexual), 양성(bisexual)일 수 있다. Kinsey 등<sup>5)</sup>은 성적 지남력이란 동성애와 이성애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개인에게 내재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다수의 동성연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어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 1980년대 DSM 질병분류에서 제외시켰고 동성애자에게 동반되는 문제나 관련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sup>6-9)</sup>. 최근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 역시 과거 보다는 동성애자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청소년기란 인간의 신체 정신의 각 분야의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즉 이차 성징 출현으로 대표되는 신체발달, 새로운 차원의 인지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사고 발달, 정서-감정 발달, 사회적 역할 습득, 원만한 성 발달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청소년의 성발달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역할(sex role)에 대한 만족도, 성에 대한 개방적 혹은 보수적인 태도(sexual attitude), 성교육,

비행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 성적 활동 실태조사들이 주를 이룬 반면에 좀 더 정신의학적인 성 발달 주제인 성주체성 분야나 동성애에 관한 연구는 몇몇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례연구는 있으나,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성주체성 문제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성별, 나이별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자아존중감과 성개발성에 있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 대 상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 6개의 중학교와 5개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각 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작성한 후 다시 수거하였다. 총 설문지 2,0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시켜 최종 분석한 자료는 총 1748명으로서 남자가 842명(중학생 359명, 고등학생 480명)이었고 여자는 906명(중학생 452명, 고등학생 457명)이었다.

### 2.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 자가 보고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1) 주체성 측정

청소년들이 성주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DSM-IV-TR<sup>10)</sup>의 성주체성 장애 진단기준 8개 항목을 저자들이 번안하여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였다. 표준화된 척도점수 산출이 불가능해 8개 항목중 몇 개를 예라고 응답하였는지 항목 숫자만 산출하였다. 1번 문항은 '될 수만 있다면 반대의 성이 되고 싶다', 2번 문항은 '반대 성의 차림새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3번 문항은 '남들이 나를 반대의 성으로 대해 주기를 원한다', 4번 문항은 '나의 2차 성징이 싫다', 5번 문항은 '반대 성의 놀이나 활동을 좋아한다', 6번 문항은 '동성에 대해 성적 흥분을 느낀다', 7번 문항은 '자신을 반대의 성으로 느낀다', 8번 문항은 '반대의 성이 되기 위해 호르몬이나 수술을 받고 싶다'이다.

#### 2) 성적 지남력 측정

동성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Kinsey<sup>5)</sup>가 개발한 척도를 저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성애의 심

각도에 따라 7단계(0점에서 6점)로 나누어져있고 피험자는 이중 하나만을 선택토록 되어 있다. 동성과 신체적 접촉 혹은 성적인 상상을 하였을 때, 0점은 '전혀 성적으로 흥분이 안된다', 1점은 '아주 드물게 동성에 흥분된다', 2점은 '동성에게서 성적 흥분을 확실히 느끼지만 이성에 더 관심이 있다', 3점은 '동성이나 이성에게서 같은 정도로 흥분을 느낀다', 4점은 '이성 보다 오히려 동성에게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5점은 '주로 동성에게서 성적 흥분을 느끼지만 드물게 이성에게서도 성적 흥분을 느낀다', 6점은 '동성에게서만이 성적 흥분을 느낀다'이다.

**3) 성에 대한 개방성 측정**

Hudson 등<sup>11)</sup>이 개발하고 김영혜<sup>12)</sup>가 청소년의 이해수준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성개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 당 0~4점이 주어진다. 성개방성은 총점(100점)에 따라 성행동의 보수 내지 진보성향을 구분하는데 총점이 50점보다 낮으면 자유로운 성개방성을, 반대로 50점보다 높을 때는 보수적인 성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자아존중감(Self esteem) 측정**

Harter<sup>13)</sup>가 소아청소년에 맞게 개발한 척도를 국문 번역하여 국내연구에 사용한 소아자아평가척도<sup>14)</sup>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총점은 36~144점까지 가능하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용 version 11.0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성주체성 문제 유무에 따른 자아평가척도와 성개방성, 동성에 성향 유무에 따른 자아평가척도와 성개방성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성주체성 문제 유무에 따른 동성에 성향의 빈도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성 주체성 문제를 보이는 학생의 빈도**

DSM-IV-TR<sup>10)</sup> 성 주체성장애 진단기준에서 저자들이 추출한 8개 항목 각각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응답율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율이 높은 문항은 1번(반대 성이 되고 싶은 바램; 15.6%), 5번(반대 성의 놀이나 활동에 대한 선호; 13.6%), 2번(반대 성의 차림새에 대한 선호; 8.6%), 4번(2차 성장에 대한 혐오; 6.3%), 3번(반대 성으로 대우받기 원함; 2.9%), 6번(동성에 대한 성적 호감; 2.6%), 7번(나 스스로 반대의 성이라는 느낌; 1.7%), 8번(반대 성으로의 성전환에 대한 기대; 0.8%) 순이었다.

남여 차이를 보면 '반대의 성이 되고 싶다', '반대 성 차림새를 하고 싶다', '반대 성의 놀이를 좋아한다'는 문항은 여학생에서 남학생 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여고생의 28.4%에서 반대의 성이 되고 싶다는 다른 응답을 보였고, 여중생의 24.3%에서 반대 성의 놀이를 좋아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동성에 성적흥분을 느낀다는 응답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다. 심각한 성주체성 문제라 판단되는 7번, 8번 문항은 남자 고등학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Table 1). 성주체성에 관한 발달학적 차이를 보고자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응답항목 개수를 살펴보면 8개 항목 모두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중학생(85.0%), 남자고등학생(83.3%), 여자중학생(60.6%), 여자고등학생(59.5%) 순으로 성주체성 확립 빈도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chi^2=123.5, df=3, p=0.00$ ). 8개 항목 중 1개 혹은 2개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에서 높았으나 보다 심각한 성주체성 장애라 판단되는 7개 혹은 8개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특히 남자 고등학생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Table 2).

**Table 1.** Positive response rate of 8 questionnaires about gender identity problems

| Item number | Middle school boy (N=359)<br>N(%) | High school boy (N=480)<br>N(%) | Middle school girl (N=452)<br>N(%) | High school girl (N=457)<br>N(%) | Total (N=1748)<br>N(%) |
|-------------|-----------------------------------|---------------------------------|------------------------------------|----------------------------------|------------------------|
| 1           | 26(7.2)                           | 45(9.4)                         | 72(15.9)                           | 130(28.4)                        | 273(15.6)              |
| 2           | 11(3.1)                           | 23(4.8)                         | 66(14.6)                           | 51(11.2)                         | 151( 8.6)              |
| 3           | 7(1.9)                            | 15(3.1)                         | 16( 3.5)                           | 13( 2.8)                         | 51( 2.9)               |
| 4           | 21(5.8)                           | 33(6.9)                         | 39( 8.6)                           | 17( 3.7)                         | 110( 6.3)              |
| 5           | 11(3.1)                           | 33(6.9)                         | 110(24.3)                          | 83(18.2)                         | 237(13.6)              |
| 6           | 10(2.8)                           | 21(4.4)                         | 8( 1.8)                            | 6( 1.3)                          | 45( 2.6)               |
| 7           | 3(0.8)                            | 14(2.9)                         | 5( 1.1)                            | 7( 1.5)                          | 29( 1.7)               |
| 8           | 2(0.6)                            | 11(2.3)                         | 0                                  | 1( 0.2)                          | 14( 0.8)               |

## 성주체성 발달과 자아존중감

**Table 2.** Number of positive responses items of the gender identity problem questionnaires

| Number | Middle school boy<br>(N=359) | High school boy<br>(N=480) | Middle school girl<br>(N=452) | High school girl<br>(N=457) | Total<br>(N=1748) |
|--------|------------------------------|----------------------------|-------------------------------|-----------------------------|-------------------|
| Zero   | 305(85.0)                    | 400(83.3)                  | 274(60.6)                     | 272(59.5)                   | 1251(71.6)        |
| One    | 33( 9.2)                     | 49(10.2)                   | 100(22.1)                     | 106(23.2)                   | 288(16.5)         |
| Two    | 14( 3.9)                     | 13( 2.7)                   | 40( 8.8)                      | 53(11.6)                    | 120( 6.9)         |
| Three  | 4( 1.1)                      | 3( 0.6)                    | 22( 4.9)                      | 17( 3.7)                    | 46( 2.6)          |
| Four   | 2( 0.6)                      | 1( 0.2)                    | 13( 2.9)                      | 4( 0.9)                     | 20( 1.1)          |
| Five   | 0                            | 1( 0.2)                    | 3( 0.7)                       | 3( 0.7)                     | 7( 0.4)           |
| Six    | 0                            | 2( 0.4)                    | 0                             | 2( 0.4)                     | 4( 0.2)           |
| Seven  | 1( 0.3)                      | 2( 0.4)                    | 0                             | 0                           | 3( 0.2)           |
| Eight  | 0                            | 9( 1.9)                    | 0                             | 0                           | 9( 0.5)           |

**Table 3.** Sexual liberality and self esteem scor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gender identity problems

| Sexual liberality    | GIP(-)                |                      | GIP(+)  |         | t     | df | p |
|----------------------|-----------------------|----------------------|---------|---------|-------|----|---|
|                      | Mean±SD               | Mean±SD              | Mean±SD | Mean±SD |       |    |   |
| Middle school (boy)  | 38.47 ± 8.21 (n=305)  | 36.13 ± 7.49 (n=54)  | 1.957   | 357     | 0.051 |    |   |
| High school (boy)    | 38.47 ± 9.36 (n=400)  | 39.38 ± 9.88 (n=80)  | -0.784  | 478     | 0.433 |    |   |
| Middle school (girl) | 36.54 ± 7.77 (n=274)  | 38.09 ± 8.31 (n=178) | -2.018  | 450     | 0.044 |    |   |
| High school (girl)   | 37.55 ± 7.61 (n=272)  | 37.51 ± 9.54 (n=185) | 0.045   | 335     | 0.964 |    |   |
| Self esteem          | Mean±SD               | Mean±SD              | t       | df      | p     |    |   |
| Middle school (boy)  | 74.73 ± 10.88 (n=305) | 71.31 ± 10.44 (n=54) | 2.139   | 357     | 0.033 |    |   |
| High school (boy)    | 73.27 ± 10.31 (n=400) | 72.09 ± 13.06 (n=80) | 0.761   | 99.64   | 0.449 |    |   |
| Middle school (girl) | 74.19 ± 7.57 (n=274)  | 73.87 ± 7.40 (n=178) | 0.447   | 450     | 0.655 |    |   |
| High school (girl)   | 74.19 ± 8.07 (n=272)  | 72.24 ± 9.60 (n=185) | 2.340   | 455     | 0.020 |    |   |

GIP(-) : non gender identity problem group, GIP(+) : gender identity problem group

**Table 4.** Distribution of Kinsey's sexual orientation scale score by age and sex

| Score | Middle school boy<br>(N=359) | High school boy<br>(N=480) | Middle school girl<br>(N=452) | High school girl<br>(N=457) | Total<br>(N=1748) |
|-------|------------------------------|----------------------------|-------------------------------|-----------------------------|-------------------|
| 0     | 294(82.8)                    | 454(94.6)                  | 372(82.3)                     | 402(88.0)                   | 1526(87.3)        |
| 1     | 16( 4.5)                     | 7( 1.5)                    | 15( 3.3)                      | 0( 2.2)                     | 48( 2.7)          |
| 2     | 18( 5.0)                     | 6( 1.3)                    | 24( 5.3)                      | 19( 4.2)                    | 67( 3.8)          |
| 3     | 16( 4.5)                     | 5( 1.0)                    | 26( 5.8)                      | 16( 3.5)                    | 63( 3.6)          |
| 4     | 6( 1.7)                      | 0( 0.0)                    | 2( 0.4)                       | 2( 0.4)                     | 10( 0.6)          |
| 5     | 2( 0.6)                      | 2( 0.4)                    | 3( 0.7)                       | 1( 0.2)                     | 8( 0.5)           |

### 2. 성주체성 문제 유무에 따른 성개방성과 자아 존중감

DSM-IV-TR 기준으로 성주체성 정도를 비교하였으므로 통계상 8개 문항 모두에 '아니오'라 답한 군을 성주체성 확립군이라 하고, 한 개의 문항이라도 '예'라고 응답한 군을 성주체성 문제 군으로 분류하여 두군 간에 성개방성과 자아 존중감을 비교하였다.

성주체성에 따른 성개방성은 성별/연령에 따라 두군 간에 일관성 있는 결과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 중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고 단지 여자 중학생에서 성주체성 문제군에서 성개방성이 높았다( $t=-2.08$ ,  $df=450$ ,  $p=0.044$ ) (Table 3).

성주체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연령에 따라 분류한 4군 모두에서 성주체성 확립군이 성주체성 문제군 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 특히 남자 중학생군( $t=2.139$ ,  $df=357$ ,  $p=0.033$ ), 여자 고등학생군( $t=2.340$ ,  $df=455$ ,  $p=0.020$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 3. 동성에 성향의 빈도

7점 척도인 Kinsey<sup>5)</sup> 동성애척도의 점수 분포를 보면 Table 4와 같다. 동성에 성향이 전혀 없는 0점은 남자 중학생의 82.8%, 남자 고등학생의 94.6%, 여자 중학생의 82.3% 여자 고등학생의 88% 이었다. 즉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적 성향이 줄어드는 발달학적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소견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 보다 더 두드러졌다(Table 4). Kinsey<sup>5)</sup>가 개발한 척도를 기준으로 7단계(0점에서 6점) 중에 이성 보다 오히려 동성에 더 성적 호감을 갖는다는

**Table 5.** Scores of sexual liberality and self esteem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homosexual tendency

| Sexual liberality    | Homosexual tendency (-) |                      | Homosexual tendency (+) |         | t     | df | p |
|----------------------|-------------------------|----------------------|-------------------------|---------|-------|----|---|
|                      | Mean±SD                 | Mean±SD              | Mean±SD                 | Mean±SD |       |    |   |
| Middle school (boy)  | 38.03 ± 8.36 (n=298)    | 38.52 ± 7.01 (n=61)  | -0.426                  | 357     | 0.671 |    |   |
| High school (boy)    | 38.49 ± 9.54 (n=454)    | 40.77 ± 7.53 (n=26)  | -1.194                  | 478     | 0.233 |    |   |
| Middle school (girl) | 37.19 ± 8.09 (n=372)    | 37.01 ± 7.65 (n=80)  | 0.175                   | 450     | 0.861 |    |   |
| High school (girl)   | 37.68 ± 8.50 (n=402)    | 36.47 ± 7.89 (n=55)  | 0.997                   | 455     | 0.319 |    |   |
| Self esteem          | Mean±SD                 |                      | Mean±SD                 |         | t     | df | p |
| Middle school (boy)  | 73.97 ± 11.41 (n=298)   | 75.43 ± 7.69 (n=61)  | -0.953                  | 357     |       |    |   |
| High school (boy)    | 73.19 ± 10.92 (n=454)   | 70.92 ± 8.50 (n=26)  | 1.041                   | 478     | 0.299 |    |   |
| Middle school (girl) | 73.98 ± 7.70 (n=372)    | 74.48 ± 6.47 (n=80)  | -0.554                  | 450     | 0.580 |    |   |
| High school (girl)   | 73.71 ± 8.44 (n=402)    | 71.11 ± 10.65 (n=55) | 2.076                   | 455     | 0.039 |    |   |

Homosexual tendency (-) : non homosexual tendency group, Homosexual tendency (+) : homosexual tendency group

**Table 6.** Frequency of gender identity problem in homosexual tendency

|                | GIP (-)<br>(N=1251) | GIP (+)<br>(N=497) | $\chi^2$ | df | p     |
|----------------|---------------------|--------------------|----------|----|-------|
| Homosexual (-) | 1118 (89.4)         | 408 (82.1)         | 17.0     | 1  | 0.001 |
| Homosexual (+) | 133 (10.6)          | 89 (17.9)          |          |    |       |

GIP (-) : non gender identity problem groupm, GIP (+) : gender identity problem group

4점 이상을 심각한 동성애라 정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여중생 3.3%, 남중생 3.1%, 여고생 2.1%, 남고생 1.7% 순이었다. 최고의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6점은 여중생 2.2%, 여고생 1.5%, 남고생 1.3%, 남중생 0.8%였다(Table 4).

**4. 동성애 성향 유무에 따른 성개방성, 자아존중감**

1점 이상을 동성애 성향이 있는 군으로 분류하여 동성애 성향 유무에 따른 성개방성 차이를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동성애 성향이 있는 군이 아닌 군 보다 성개방성이 높고 여학생의 경우는 반대로 동성애 성향이 없는 군에서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다(Table 5).

동성애 성향 유무에 따른 자아평가척도를 비교한 결과 남자 중고등학생, 여중생에서는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여고생의 경우만 동성애 성향이 있는 군에서 동성애 성향이 없는 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t=2.076, df=455, p=0.039) 자아평가척도가 낮았다(Table 5).

**5. 성주체성 문제 유무에 따른 동성애 성향**

성주체성 문제 유무에 따른 동성애 성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주체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성주체성 문제가 없는 군보다 동성애 성향이 많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7.0$ , df=1, p=0.001).

**고 찰**

청소년의 성주체성에 관한 본 연구 결과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본 연구 자체의 한계점에 대해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가 보고식 집단검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구조화된 면담 자료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둘째로 성주체성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척도를 사용하여야하나 저자들이 DSM-IV-TR<sup>10)</sup> 성주체성장애 진단기준에서 추출한 8개 항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의 가중치를 반영 못하고 단순히 ‘예’라고 응답한 항목수로 성주체성 문제 여부나 각 항목내용의 심각도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설문지 도구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성주체성 문제를 시사하는 8개 항목 모두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중학생(85.0%), 남자 고등학생(83.3%), 여자 중학생(60.6%), 여자 고등학생(59.5%) 순으로 성주체성 확립 빈도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의미있게 낮았다. 여학생에서 성주체성 확립 빈도가 낮은 이유를 응답한 문항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역할에 만족치 못하여 남성이 되고픈 소망이나 남성으로 행동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급작스런 신체적 변화와 2차 성징이 출현하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성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들이<sup>15-17)</sup>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 여고생간의 연령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보다 심각한 성주체성 장애를 시사하는’ 자신이 반대의 성이라는 느낌’ 혹은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통한 반대성이 되고자하는 욕구’에 응답한 경우나 혹은 7, 8개 항목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 특히 남자 고등학생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 초기보다 후기에 정체감 확립을 위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sup>16)</sup>. 또한 외국의 성전환증 발생빈도가 3배내지 5배 남자가 높고, 실제 성정위술을 받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 환자의 남녀 비율은 ‘2 :

1'이라는 보고나<sup>17)18)</sup>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수술 자원자의 남녀 성비가 대략 '2 : 1'이라는 보고와<sup>4)</sup> 일치되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항목 분포상 5개 이상항목에 응답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의 청소년에서 심각한 성주체성 문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성주체성장애의 빈도는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역학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빈도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20)</sup>. 소아에 관한 연구로는 4,5세 남아의 16%가 반대의 성처럼 행동하고 이 중의 16%가 여아가 되기를 원했다는 보고<sup>21)</sup>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남아 모두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 성주체성 확립군의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발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성주체성의 확립은 사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성주체성 문제 여부에 따른 성개방성은 성별/연령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주체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성별/연령에 따라 분류한 4군 모두에서 성주체성 문제군이 성주체성 확립군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특히 남자 중학생, 여자고등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낮았다.

이는 성주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전환증 환자들에게서 흔히 불안이나 우울증상, 자살기도나 자해 등의 자기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것<sup>22-26)</sup>으로 보아 성주체성에 혼란을 보이는 청소년에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성주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인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전체 동성애 성향 빈도는 12.7%로 남자 중학생이 17.2%, 남자 고등학생이 5.4%, 여자 중학생이 17.7%, 여자 고등학생이 12% 였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서 동성애적 성향이 줄어드는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발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초기에 일시적인 동성애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 성장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는 동성과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적인 성향이 꼭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27-29)</sup>.

이성 보다 오히려 동성애에 더 성적 호감을 갖는 경우를 동성애자라 판단할 때 여중생의 3.3%, 남중생의 3.1%, 여고생의 2.1%, 남고생의 1.7% 순이었다. 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는 여중생 2.2%, 여고생 1.5%, 남고생 1.3%, 남중생 0.8%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성애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서 흔하였다. 현재 정확한 빈도는 알기 어려우나 미국에서 최근 조사

한 바로는 동성애자는 어른의 경우 1.5%에서 10.1%로 추정되고 있다<sup>28)</sup>. 정확한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통계치는 얻을 수 없는 상태이나, 최근 미네소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36,706명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에서는 1.6%의 남학생과 0.9%의 여학생이 그들 스스로가 동성애자라고 얘기했으며 10%는 "자신의 성지남력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보고를 하였다<sup>27)</sup>.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의 빈도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적어도 동성애적인 성행위가 본인이 원하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대학생들의 15~2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sup>30)</sup>.

동성애 성향 유무에 따른 성개방성은 두 군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고, 자아존중감은 남자 중학생과 고등학생, 여중생에서는 두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고생의 경우 동성애 성향이 있는 군에서 동성애 성향이 없는 군 보다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Fergusson 등<sup>31)</sup>은 동성애 청소년의 전향적 연구에서 자살사고나 우울 등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위험률이 높다고 하였다. 동성애에 성적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는 남들과 다르게 동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재된 동성애 혐오 등의 문제를 내재할 수 있다고 한다<sup>32)</sup>.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이 성인에 비해 성정체성에 대해 더 혼란스러워하며 내재된 동성애 혐오를 가지기 쉬운 시기이며, 우울, 자살, 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많이 동반할 수 있다는 보고<sup>33)</sup>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성주체성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서 성주체성이 확립된 청소년 보다 동성애 성향 빈도가 의미있게 높았다. 성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성인에서 동성애자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Green 등<sup>34)</sup>은 성주체성 장애의 진단기준에 맞는 75%의 소년이 19세까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Di Ceglie 등<sup>35)</sup>은 성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160명의 아이들의 75%가 청소년과 성인에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른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에서 대부분이 어린 시절 성주체성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sup>23)</sup>. 이들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성주체성 장애를 동성애의 초기 증세로 보아서는 안되나, 청소년기 성주체성 장애가 동성애의 70% 정도의 강한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sup>20)36)</sup>.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표준화되고 정량화

된 척도를 사용치 못하였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주체성과 동성애에관한 실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하겠다. 향후 학교 정신 보건 차원에서 성주체성 문제나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적 갈등을 보일 경우에 적절한 정신과적 개입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 References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th ed revision. Washington, DC: 987.
- 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1994.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CD-10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Geneva;1992.
- 4) 류설영, 양창국, 최병무, 주영희. 성정위술 자원자의 정신과적 면담 및 MMPI 반응 분석. 생물치료정신의학 2002; 8(2):318-331.
- 5) Kinsey AC, Pomeroy WB, Martin CE.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Saunders;1948. p.612-617.
- 6) Fergusson DM, Horwood LJ, Beautrais AL. Is sexual orientation related to mental health problems and suicidality in young peo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9;56:876-880.
- 7) Herrell R, Goldberg J, True WR, Remakrishnan V, Lyons M, Eisen S, et al. Sexual orientation and suicidality: A cotwin control study in adult m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9;56: 867-874.
- 8) Erwin K. Interpreting the evidence: Competing paradigms and the emergence of lesbian and gay suicides as a "social fa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993;23(3):437-453.
- 9) Safren SA, Heimberg RG. Depression, hopelessness, suicidality and related factors in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99;67(6):859-866.
- 1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st revision. Washington, DC:2000.
- 11) Hudson WW, Murphy GJ, Nurius PA. A short 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conservative orientations toward human sexual expression. The J of Sexual Research 1992;19:258-272.
- 12) 김영혜. 한국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프로그램이 성역할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000;30(6):1556-1568.
- 13) Harter S.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Press;1985.
- 14) 장인호, 엄승희, 김경도, 이영식. 야뇨증 환아에서 치료 전후의 자아의 변화. 대한비뇨기과 학회지 2001;42(10):1080-1086.
- 15) Offer D, Ostrov E, Howard K, Atkinson R. Normality and adolescence. Psychiatr Clin North Am 1990;13:377-388.
- 16) 홍강의, 신민섭.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 발달. 신경정신의학 1994;33(6):1378-1388.
- 17) Lothstein L. Psychological testing with transsexuals: A 30-year review. J Pers Assess 1984;48(5):500-507.
- 18) Meyer J. The theory of gender identity disorders. J Am Psychoanal Assoc 1978;30(2):381-418.
- 19) Coates SW, Wolfe SM. Gender identity disorder in boys: The interface of constitution and early experience. Psychoanalytic Inq 1995;15(1):6-38.
- 20) Bradley SJ, Zucker KJ. Gender identity disorder: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7; 36:872-880.
- 21) Bailey JM, Zucker KJ. childhood sex-typed behavior and sexual orientation: A conceptual analysis and quantitative review. Dev Psychol 1995;31:43-55.
- 22)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1993;32(4):465-471.
- 23) Baumeister RF, Shapiro JP, Tice DM. Two kind of identity crisis. J Personal 1985;53:407-424.
- 24) Cote JE. Identity crisis modality: a technique for assessing the structure of the identity crisis. J Adolescence 1986;9:321-335.
- 25) Lefkowitz MM, Testiny EP. Depression in children: prevalence and correlates. J Consult Clin Psychol 1985;53:647-656.
- 26) Anhalt K, Morris TL. Developmental and adjustment issues of gay, lesbian and bisexual adolescent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lin Child Fam Psychol Rev 1998;1:215-230.
- 27) Blythe MJ, Rosenthal SL. Female adolescent sexuality. Promoting healthy sexual development. Obstet Gynec Clin No Amer 2000;27:125-141.
- 28) Ryan C, Futterman D. Caring for gay and lesbian teens. Contemporary Pediatrics 1998;15:107-130.
- 29) Perrin EC. Pediatricians and gay and lesbian youth. Pediatr Rev 1996;17:311-318.
- 30) 광영숙. 한국 청소년의 성의식. 대한의사협회지 2000;43(2): 119-127.
- 31) Fergusson DM, Horwood LJ, Beautrais AL. Is sexual orientation related to mental health problems and suicidality in young peo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99;56:876-880.
- 32) 공성욱, 오강섭, 노경선.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비교. 신경정신의학 2002;41(5): 930-941.
- 33) Stronski Huwiler SM, Remafedi G. Adolescent homosexuality. Advances in Pediatrics 1998;45:107-144.
- 34) Green R. The "Sissy Boy Syndrome" and the Development of Homosexualit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T;1987.
- 35) DiCeglie D. Gender identity disorder in young people. Adv Psychiatric Treatment 2000;6:458-466.
- 36) Menvielle EJ. Gender identity disorder [Letter to the editor].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8;37:243-244.

## SELF ESTEEM AND SEXUAL LIBERALITY OF ADOLESCENT WITH GENDER IDENTITY PROBLEM AND HOMOSEXUAL TENDENCY

Young Sik Lee, M.D., Ph.D., Chang-Moo Jeon, M.D., Ph.D.,  
So Youn Kim, M.D., Bock Ja Ko, M.D., Ph.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Objectives :** This study was done to figure out the incidence of Korean adolescents with gender identity problem and homosexual tendency. Self esteem and sexual liberality were also checked to evaluate the relation with these problems.

**Method :** Subjects were 1,748 adolescents (359 middle school boys, 452 middle school girls, 483 high school boys, and 454 high school girls). DSM-IV-TR gender identity disorder criteria, Kinsey's sexual orientation scale, Hudson's short form sexual liberality scale, an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were applied to them.

**Result :** 1) 15% of the middle school boys, 16.7% of the high school boys, 39.4% of the middle school girls, and 40.5% high school girls showed gender identity problem. Incidence of mild problem was more frequent in girls, however severe problem that suggested gender identity disorder was more frequent in boys, especially in high school boys.

2) Gender identity problem group showed lower self esteem than no problem group, especially in the middle school boys ( $p=0.033$ ) and high school girls ( $p=0.020$ ).

3) 17% of the middle school boys, 5.4% of the high school boys, 17.7% of the middle school girls, and 12% of the high school girls showed homosexual tendency. The order of more vivid homosexual orientation incidence was as follows : 3.3% in the middle school girls, 3.1% in the middle school boys, 2.1% in the high school girls, and 1.7% in the high school boys.

4)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score of sexual liberality according to homosexual tendency. In high school girl, self esteem score was lower in homosexual tendency group than that of heterosexual group ( $p=0.039$ ).

5) Gender identity problem group showed higher incidence of homosexual tendency than that of gender identity formation group ( $p=0.001$ ).

6) The incidence of sexual identity problem was not changed by age, but homosexual tendency was decreased with age, especially in boys.

**Concluison :** Adolescents with gender identity problem or homosexual tendency showed low self esteem. Therefore, more attention on systemic evaluation for early detection in school based mental health and psychiatric management for them are needed.

**KEY WORDS :** Gender identity · Sexual orientation · Self esteem · Sexual liberality.